

## 濟州海女の 民俗學的 研究\*

김 영 돈\*\*

### I. 序 : 濟州海女の 珍重性和 그 研究課題

珍重한 職業人인 濟州海女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져 가고, 그 調査 研究作業 역시 그 熱氣는 더해 가지만, 아직은 그 유별난 관심에 비하여 研究의 진척이 더디다. 날이 갈수록 해녀가 썩 줄어들어 가는 오늘이때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는 重要, 時急한 時點에 놓여 있다.

世人들은 어찌하여 海女를 한결같이 珍重하게 보는 것일까. 이를 한두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다음 몇가지를 내세울 수 있다.

① 해녀질은 作業主體가 女性인데다가 作業場所는 시퍼런 바다요, 더구나 그 作業方法이 裸潛이다.

② 해녀들은 뛰어난 潛水作業技倆과 굳건한 意志力을 지녔다.

③ 제주해녀의 月平均作業日數는 15일 이상이나 되고, 分娩前後를 가림이 없이 물질한다.

④ 해녀는 韓國과 日本에만 분포되었으매 稀貴하고, 특히 제주도에 密集되어 있다.

⑤ 제주해녀는 제주도 연해에만 국한하지 않고, 韓半島 各沿海와 附屬島嶼 및 日本·中國·소련에까지도 出稼하여 물질했었으므로 그 行動半徑이 東北아시아 일대에 뻗었었다.(지금도 韓半島에는 더러 나간다.)

⑥ 제주해녀는 類例가 없는, 力動的인 〈海女노래〉를 유별나게 지닌다.

\* 이 論文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1984年度 研究費支援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민속학·구비문학 전공.

⑦ 제주해녀는 근래에 이르러 激減趨勢에 놓여 있다.

해녀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① 民俗學的, 文化人類學的 側面, ② 經濟學的 側面, ③ 文學的, 音樂的 側面, ④ 法社會學的 側面, ⑤ 生理學的, 醫學的 側面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몇가지 측면에서의 고찰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었으매, 專攻이 제각기 다른 調査陣에 따른 學際的 研究가 요청된다.

民俗學이나 文化人類學的 觀點에서 해녀를 분석하는 작업은 실로 광범하다. 해녀마을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삶의 방법이 있고, 漁村社會 特有的 共同體의 性格을 길게 띤다. 그 文化類型도 유다르다. 個人所有로 劃定되어 있는 田地와는 달리 海女漁場, 곧 第一種共同漁場은 마을의 總有로서 自生的, 自律的인 入漁慣行에 터진하여 물질을 한다. 그 入漁慣行, 곧 漁場管理 등 해녀들이 치러야 할 義務와 누릴 수 있는 採取權 등의 權利는 제주도 안에서 마을에 따라서 좀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의 最南端인 馬羅島에서 敬老習俗의 일종으로 61세 이상의 老婆海女들에게만 特別專用케 하는 <할망바당><sup>1)</sup>을 정해 놓은 習俗이라든가, 다른 마을로 出稼한 여인들에 대한 入漁權 規制, 새로운 入住者에 대한 入漁權 附與條件의 嚴格性 등이 같은 제주도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漁村社會의 바탕에는 共同體의 性格이 길게 깔리므로 村落單位의 結束이 純農村보다 굳다. 豐漁를 비는 <영등굿>도 韓半島 南部의 海村에서는 個人儀禮로 치러지지마는, 제주도에서는 마을의 共同儀禮로서 전승된다. 해녀마을의 俗信은 純農村에 비하여 비교적 多樣하고 強度도 짙은 듯 여겨진다. 역시 生死의 갈림길인 海原에서 怒濤와 싸우며 치러야 되는 生業에 종사하는 터여서 그 民間信仰의 密度가 길게 드러나는 줄 안다. 年中 살아가는 방법이나 行事 역시 純農村과는 다르며, 그 삶의 태도나 心意現象도 主漁副農, 半農半漁, 主農副漁의 마을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리라고 본다. 民俗學的, 文化人類學的 觀點에서 海女나 海女마을을 조사분석되어야 할 과제는

1) '할머니 바다'라는 뜻으로 馬羅島民들의 自生的 決議에 따라서 할머니들만이 入漁할 수 있게 특별히 劃定해 놓은 馬羅島 연안의 漁場.

실로 슬하다.

물질은 우선 生計의 한 수단이므로 經濟的 側面의 高찰이 중요하다. 더구나 제주해녀는 제주도 수산업의 主宗을 이루어서 그 漁獲量이나 漁獲高가 제주도 水産收入의 半을 한결같이 웃돈다. 오늘날 제주도 總輸出高의 약 8할을 해녀 채취물이 차지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마을의 성격이 主漁副農, 主農副漁,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家庭經濟에서 차지하는 바 해녀수입의 비중도 달라진다. 社會의 變遷에 따른 해녀의 激減과 關聯되는 주민들의 收入依存度, 純農村에 비한 海女村의 支出傾向 및 해녀 수입의 地域經濟에 대한 寄與度 등 經濟的 側面에서 다루어야 될 과제도 슬하다.

<해녀노래>에 대한 조사 연구 역시 중요하다. 本格的인 <해녀노래>는 제주해녀들만이 口演하기 때문이다. 해녀는 韓國과 日本에만 분포되었는데, 일본해녀들은 槽를 저어 나가지는 않으므로 <해녀노래>의 歌唱機緣이 뚜렷하지 않다. 일본해녀들은 작업장으로 걸어가면서 가끔 민요를 부르는 듯, 요마적에 이르러서야 민요의 한 종류로 定立하자는 提議가 이는 제제다.<sup>2)</sup> 민요는 가락·사설·기능의 三位一體의 傳承이 이루어지므로 가락을 위주로 한 音樂的 側面의 高찰과 口傳文學인 사설을 文學的 側面 및 民俗學的 側面에서 분석하는, 세측면의 考察이 필요하다. 이 세측면의 考察이 근래에 活性化되어 가는 편이긴 하지마는, 課題의 比重에 비하여 그 進展이 더디다.

해녀는 또한 特殊技倆을 지닌 裸潛漁法을 수행하므로 生理學的, 醫學的 觀點에서 면밀히 高찰할 필요가 있겠다. 1960년대부터 美國務省의 관심에 따른 韓國과 日本海女の 潛水技倆 및 特有의 生理研究를 高비로 하여 生理學的, 醫學的 觀點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충실히 진척되어 가는 것으로 안다. 이 방편의 國際的인 學術活動도 활발히 전개되어 간다.

生理學的, 醫學的 側面의 연구는 그들이 지니는 特殊技倆에 대한 高찰도 중요해거니와, 이에 아울러 職業病 등 醫學的 側面의 高찰 역시 소중하다. 근래 제주도 당국에서 해녀에 대한 厚生福祉 등 保護施策과 減少防止策에 안간힘을 다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구의뢰(濟州醫療院 및 서울大病院) 등

2) 關山寺禰; “民謠と海女の傳承”, 《日本民俗學》116號, 1978.

을 벌이는 일도 바람직스럽다. 또한 高神大學의 潛嫂科學研究所의 활동 등이 기대된다. 어차피 海女服이 고무옷으로 改變됨에 따른 職業病的 深化를 막고, 海女數의 激減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활동과 施策이 알차게 펴지기를 기대한다.

해녀에 대한 法社會學的 側面的의 고찰 역시 注力할 만한 숙제다. 해녀마을, 곧 漁村共同體는 그 나름의 社會構造上 特異性을 지니며, 自生的, 合理的인 慣習이 전승된다.

入漁權을 둘러싼 마을나름의 自生的 慣行, 마을과 마을 사이의 漁場紛糾 및 韓半島, 특히 慶北 迎日灣一帶의 入漁慣行權을 둘러싼 말쟁 등 숙제는 산처럼 쌓였다.

農土와는 달리 漁場은 마을 總有的 것이며, 그 所有權의 劃定이 모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마을사람들이 共同協議, 共同遵守해야 될 慣習法的 規範이 복잡다단하고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漁村共同體를 이끌어 나가는 데 漁村契나 海女會(潛嫂會)의 기능 또한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考究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상 제주해녀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다섯가지의 觀點을 요약했거니와, 이에 더불어 特有的 海女の 語彙 및 海女社會의 價値意識 등도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다.

學際的 研究의 필요성에 비추어 1985년에는 金範圍(經濟的 側面)·徐庚林(法社會學的 側面)·필자(民俗學的 側面) 등이 공동으로 조사해 보았지만<sup>3)</sup>, 제한된 시일 안에 이루어진 작업이라 의욕에 따를 수는 없었다.

해녀 조사연구가 重要, 時急한 이유의 하나로는 요마적에 해녀가 급작스레 激減되는 데도 있음을 앞에서 전제했다. 해녀수의 통계 역시 중요한 숙제다.

해녀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至難한 일이지만, 濟州道에 따르면 제주의 해녀수는 1970년에 14,140명, 1985년에는 6,684명으로 집계되었으니, 그 통

3) 金榮敦·金範圍·徐庚林：“海女調査研究”，《耽羅文化》第5號，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1986.

계의 正確度 與否는 고사하더라도 15년 사이에 반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말이 된다.<sup>4)</sup> 또한 제주도에 따르면 20대의 해녀수는 불과 5%밖에 안되며, 더구나 20세 미만은 0.4%로 나타났다. 머지 않아서 제주해녀는 아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다. 따라서 政策的 次元에서 해녀를 保護, 育成해야 할 대책도 문제려니와, 앞으로는 해녀 조사작업 역시 어려운 눈앞에 부딪치게 될 듯하다.

제주의 해녀수는 얼마나 될까. 濟州道나 水協濟州道支部의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녀수는 1980년대에 이르러 6천~8천 사이를 오르내린다. 이 統計數値는 漁村契에 가입된 契員數를 토대로 그 女契員數만을 차출해내는 방법이 일반적이는데, 그 기준의 妥當度가 문제될 수 있다.

첫째는 해녀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1986년말 제주도 수산과의 집계(表1)에 따르면 전북·소라 채취해녀를 6,637명으로 보고, 툯 채취해녀는 5,102명, 臨時的 漁民(occasional fishman)이라 볼 수 있는 潜在海女 217명을 포함하여 11,956명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전북·소라 등 貝類를 채취하는 本格的 海女 6,637명만을 해녀로 볼 것인가, 툯 채취해녀 및 解警(許採·대즈문) 때에나 작업하는 潜在海女까지 포함한 11,956명 모두를 해녀로 볼 것인가의 기준여하에 따라서 해녀수의 집계는

<表 1> 潛嫂實態調查

1986年末

區分 水協別	漁村 契數	전북·소라 採取 潛嫂		툯採取潛嫂		潛在潛嫂		潛嫂數計	
		잠수수	백분률	잠수수	백분률	잠수수	백분률	잠수수	백분률
濟州市	25	2,120	46 %	2,264	50 %	168	4 %	4,552	100%
西歸浦	24	1,997	65.5%	1,027	34 %	14	0.5%	3,038	100%
城山浦	10	1,188	53 %	1,054	47 %	1	—	2,243	100%
楸子島	5	178	64 %	92	33 %	7	3 %	277	100%
翰 林	18	1,154	63 %	665	36 %	27	1 %	1,846	100%
計	82	6,637	56 %	5,102	42 %	217	2 %	11,956	100%

資料：濟州道水產課

4) 《1986年度 水產現況》，濟州道.

감절이나 오락가락한다.<sup>5)</sup>

다음에는 해녀수의 算出根據를 女性漁村契員의 集計에 두는 것이 타당하겠는가의 문제다. 裸潛漁業, 곧 해녀질(물질)을 生業으로 하면서도 漁村契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한 세대의 부모만이 漁村契에 가입되고 그 집안의 딸들은 어엿한 해녀이면서도 漁村契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계에서도 누락된다는 점 등에 유념해야 될 것이다.

셋째는 행정당국의 통계와 주민들의 집계와의 차이다. 이는 필자가 1960년대 이래 현지조사를 이어가면서 한갓 문제로 제기되었다. 곧 各漁村契 실무자나 현지주민들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행정당국의 해녀수의 집계에 비한 실제 해녀수는 약 1.5배 내지 2배에 이른다는 견해가 많았다. 예를 들면 소섬(北濟州郡 牛島面) 東天津洞의 해녀수는 1985년 현재 공식적으로는 43명으로 집계되었지만<sup>6)</sup> 우평순(여·48)등 현지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약 80명에 이르리라는 의견이었다.

이리하여 행정당국의 해녀수 통계의 1.5배수를 실제의 해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그렇다면 濟州道の 《1986年度 水産現況》에 따를 때 1985년 현재의 해녀수는 6,684명으로 드러났는데 이의 1.5배수라면 10,026명, 곧 약 1만명이 된다고 추정된다. <表 1>에 드러나듯, 제주도 당국의 최근의 <잠수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녀수는 전복·소라 채취 해녀(6,637명)에 국한하지 않고 툯 채취해녀(5,102명)와 潛在海女(217명)를 합칠 경우 11,9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통계를 참조하면 제주도의 해녀수는 1만명 내지 1만 2천명 사이를 오르내린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제주 해녀수의 정확한 파악은 우리의 중요한 研究課題의 하나인 셈이다.

5) 日本에서도 貝類採取海女와 海藻類採取海女를 구분짓고 있다. 前者를 '貝海女'·'鮑海女'·'鮑チグリ'라 일컫고, 後者 곧 주로 우뭇가사리를 캐는 海女를 'テンゴサ海女'라 한다. (瀨川清子; 《海女》 p. 275, 未來社, 1970) 1985년 8월 필자의 현지조사에 따르더라도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의 漁村契의 견해로는 貝類採取海女가 40%, 海藻類採取海女가 60%에 이를 것이라고 推定했다.

6) 《1985年度 業務報告》, 演坪法人漁村契.

이상 海女の 珍重性과 그 研究課題를 序言 삼아 간추려 왔다. 濟州海女の 民俗學的 研究를 試圖하는 작업은 海女들의 물질과 삶 및 海女社會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실로 광범하다. 이 글에서의 논의대상은 다음 몇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① 海女の 裸潛漁業은 안전한 陸地와는 달리 창망한 바다를 作業場으로 삼기 때문에 身命의 위험에 직면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機緣으로 전승되는 바 龍宮에 다녀온다든가 하는 怪奇談으로선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는가.

② 海女社會에서 전승되는 民間信仰은 어떠한가. 광범한 俗信 가운데에서도 특히 村落共同豐漁祭인 영등굿 및 潛女굿과 羅州金氏의 조상으로 알려진 <구슬할망본풀이>는 어떻게 전승되는가.

③ 海女器具의 材料·規格 및 機能과 變遷은 어떠한가, 이를 둘러싼 習俗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④ 濟州海女 特有的 <海女노래>의 機能, 傳承은 어떠한가, 그 사실에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 Ⅱ. 海女作業에 따른 怪奇傳承

해녀의 물질은 거친 海原을 무대로 하여 이뤄지는 生業이매 늘 不意의 危機를 전제한다. 가다가 물속에서 窒息해서 목숨을 여의는 수도 있다. 이리하여 海村에는 怪奇한 이야기가 傳承되기 마련이고 그 口碑傳承 가운데는 가끔 龍宮이 등장하는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 네가지의 傳承을 소개한다. (1)은 實話이고 나머지는 傳說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2), (3)에는 龍宮이 설정되었음이 주목된다. 바다의 彼岸에 淨土(理想郷)를 설정하고 해녀만은 이곳을 自在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데서 龍宮이 등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 머리털 잘리고 살아난 소섬해녀
- (2) 珊瑚海女
- (3) 용궁올레

## (4) 고래 등에 붙은 전복 만 해녀

## 1. 머리털이 잘리고 살아난 소섬 해녀

약 45년전, 그리니까 1940년쯤에 일어났던 일이다. 소섬(北濟州郡 牛島面)의 下牛目洞과 西天津洞의 경계인 ‘넛골알’에서였다. 개인 낚시인데다 썰물이어서 마침 물질하기에는 안성마춤이었다.

한 물거리 물질을 마치자, 해녀들은 재잘거리면서 採取된 海産物을 넣은 망시리를 들고 바닷가로 걸어 나왔다. 그런데 웬 일일까. 만행이 할머니만은 보이지 않았다. 겁이 나서 누군가가 버럭 소릴 질렀다.

“큰일났다. 만행이 할머니가 안 보였싱게”

바다에는 테왁만이 동실 떠 있을 뿐, 한참 기다려도 만행이 할머니의 모습은 나타나질 않는다. 애 타게 기다려도 할머니는 안보였다. 할머니가 숨졌다든 소식은 삼시간에 번져,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바닷가로 몰려들었다. 바닷가에 구름떼처럼 모여든 동네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숨만이 감돌았다. 몇해 녀가 바닷속에 뛰어들어, 테왁만이 외로이 떠 있는 물속을 살살이 누벼 왔으나 할머니를 찾을 수는 없었다. 바닷가는 삼시간에 어두운 침울만이 내리 깔렸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느닷없이 부딪친 사건이라 모두는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모두가 망연실색한 채 두어시간쯤 흘렀을까. 숨진 줄만 알았던 만행이 할머니가 귀신과도같이 물 위로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닌가. 천만뜻밖의 사태에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만행이 할머니 입에는 틀림없으나 어찌된 일인지 머리가 짹짹 꺾여지지 않았는가. 이윽고 숨을 돌려신 할머니는 불을 쬐면서 일의 自初至終을 천천히 털어놓았다.

노파는 전복을 캔다고 바다속 깊이 들어갔다. 열한길인가 열두길쯤 들어가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머리가 아찔하더니 웬걸 낫종지(낫종제기)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닌가. 낫종지는 자기가 인도하는 데 따라 좇아오도록 여인에게 종용하는 시늉을 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 낫종지를 따라가야만 될 듯이 노파는 느껴졌다. 느닷없이 수기나무가 현철하게 드러나더니 덩그



런 대문이 보이고, 의젓한 기와집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훌륭한 절이었다. 절 안에는 염주를 든 스님이 의젓이 노파를 맞아드렸다.

“이곳에 들어오면 우선 누구든지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타이르 듯이 말하면서 스님은 박박 노파의 머리털을 깎기 시작했다. 노파로서는 으레 그래야만 될 듯이 느껴졌다. 다 깎고 나자, 스님은 정색하며 뜻 있는 말을 건넸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에는 헤어려 보건대 너무 이르므로 사바세계에 되돌아가서 일년반 동안만 더 지내다가 다시 올 것으로 하시오. 지금 들물때가 시작되므로 서둘러 되돌아가도록 하시오.”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파는 저도 몰래 물위로 솟아오르게 되었다 한다.

불을 쬐면서 떠들떠들 그 경위를 느러놓는 노파의 말을 듣는 동네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 마지 않았다. 노파의 머리는 깎여졌을 뿐더러, 목에는 칼금이 나 있었다. 삭발하던 칼이 빛나가서 난 칼금인 듯했다. 신통하게 되살아나기는 했으나, 만행이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딱 일년반 동안을 살더니 돌아갔다. 되살아난 다음에는 심방(무당)이 되어 심방질(무당질)을 하면서 지내다가 일년반이 지나서 돌아갔다고도 한다.

이 이야기는 소섬에는 물론 제주도본섬에도 삼시간에 퍼졌고, 오늘날에도 상식으로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안은 채 면면히 전해진다. 체보자 김선옥(여·48)은 그의 부친(81세)이 그 당시의 목격자라고 힘주어 강조한다.

(1985. 8. 23. 牛島面 東天津洞 등대여인숙에서 김선옥, 여·46 진술)

## 2. 珊瑚海女

예전에 제주도 남서쪽 攀瑟浦에 한 해녀가 물질을 하며 살고 있었다. 上軍海女였지만 어느 누구나 쥐는 마마를 앓아 보지 않은 여인이었다.

한여름 어느날과 같이 그 해녀는 金露浦(지금의 南濟州郡 安德面 沙溪里)에 물질을 나갔었다. 떼와락 빗창 따위를 챙겨서 바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웬일인지 바다거북의 일종인 玳瑁가 바닷가 응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썩 안스러운 생각이 솟구쳤다. 일몰때에 바닷가로 올라왔다가 물이 써자 바다로 되돌아가지 못하여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듯 보였다. 그 해녀는 玳瑁를 궁홀히 여기는 나머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 玳瑁를 고이 붙들고 바다에 놓아 주었다. 거북을 龍王처럼 받든다는 것은 傳來的 習俗이었기 때문이다. 玳瑁는 이제야 살았다고 기쁜 표정으로 바다로 헤엄쳐 갔다. 가다가 잠깐 되돌아 서더니 펴고마와하는 뜻으로 그 해녀를 보며 머리를 조아리고는 유유히 물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에도 그 해녀는 金露浦 앞 용머리에 물질하러 나갔다. 전복을 캐려고 열길 물속으로 깊숙히 무자맥질해 들어갔다. 이젠 무슨 變故인가. 눈앞이 아찔하더니 光澤이 나는 조개로 으리으리하게 장식된 大關이 보이는 게 아닌가. 別天地가 전개되는 것이다. 신들린 사람처럼 들어가 보니 百花가 난만히 피어 있고 눈부실 만큼 화려한 宮闕이 드러났다. 해녀는 宮闕門까지 이르렀다.

宮闕 속에서는 한 노파가 나타났다. 해녀를 반가이 맞으며, 자기 자식을 살려 줘서 고마운 말씀 다할 길 없다는 사례와 함께 궁궐로 인도해 들어갔다. 잘 대접을 받고 나오려는데, 그 노파는 꽃 한가지를 선물로 주었다.

“이 꽃을 잘 간직하십시오. 이 꽃을 가지고 있으면 마마는 걸리지 않으리다.”

해녀가 물 밖으로 나와 보니, 그것은 珊瑚꽃이었다.

평생토록 해녀는 그 珊瑚꽃을 珍重히 간직했다. 과연 그 말씀대로 效驗이 있어서, 그 해녀는 한평생 마마를 앓지 않았다는 말이 전한다.

(朴用厚; 《元大靜郡誌》, p. 119, 博文出版社, 1968. 玄容駿; 《濟州島傳說》, pp. 213~215, 瑞文堂, 1976).

### 3. 용궁올레

‘용궁올레’란 龍宮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란 뜻인데, 南濟州郡 城山邑 新豐里 앞바다에 있다. 그 일대에는 마치 龍의 머리처럼 생긴 奇岩怪石들이 볼

쑥불쑥 솟았기 때문에 ‘용머리’(龍頭)라 한다. 그 용머리 앞쪽에는 깊숙한 바다골짜기가 주욱 뻗쳐 있고, 그곳 바다색은 유별나게 질투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龍宮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믿고 ‘용궁올레’라 일컫는다. ‘올레’란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고 좁다란 골목길을 일컫는 濟州語. 그곳은 水深이 워낙 깊을 뿐더러, 南海龍宮으로 들어가는 ‘올레’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이 神聖視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접근하기를 꺼리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든 두려움없이 덤비고 기백이 팔팔 넘치는 大上軍海女 송씨여인이 살고 있었다. 송씨해녀만은 남들이 출입하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 ‘용궁올레’에서 과감히 무자백질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송씨여인은 물질을 하기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등통 살찐 전복을 술하게 따오곤 했었다.

송씨해녀가 ‘용궁올레’의 스무길 가까운 물속으로 들어가서 전복·소라를 캐는 어느 날이었다. 물숨(물속에서의 숨쉬기)도 가쁘고 해서 그만 나올까 베투던 차에 우물부풀한 바위틈에 웅얼 등글넉적한 전복이 눈에 띄는 게 아닌가. 뜻밖의 橫財나 만난 듯 그녀는 숨가쁨도 있었다. 허리에서 이내 빗창(전복을 캐는 길쭉한 쇠붙이)을 끄내 들고 이를 캐려고 달려들었다. 그 찰나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뜻밖에도 別天地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어찌 된 일일까. 대낮처럼 햇빛은 쟁쟁 비치고 웬 강아지 한마리가 쟁쟁 짖어대는 것이 아닌가. 그 강아지는 송씨여인에게 어서 오라는 듯 꼬리를 설레설레 흔들어대었다. 그녀는 무심코 강아지를 뒤따라갔다. 휘황찬란히 단장한 童男童女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俗世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호화로운 宮殿들도 핑길하게 준비해 있었다. 이런 세상도 다 있단 말인가. 제 눈을 의심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는데, 公主처럼 단아한 미녀가 그녀 앞으로 불쑥 다가섰다.

“그대는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旌義고을” 新豊里 사람으로서 물질을 하면서 사는데, 오늘은 전복

7) 제주도도 1416년(朝鮮朝 太宗 16年)에서 1914년까지 약 5백년간 濟州牧·大靜縣·旌義縣으로 나누어 통치되었었는데, ‘旌義고을’이란 旌義縣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의 西歸浦市와 南濟州郡 東半部에 해당된다.

을 캐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나서 저도 모르는 새 이곳에 이르게 됐읍니다.”

사연을 듣고난 미녀는 이곳이 南海龍宮이어서 俗世人間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과, 만약 이런 일을 龍王이 알게 된다면 인간세상에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죽고 말 것이라는 실정을 일러 주었다. 그러면서 그 미인은 귀엣말로 자기가 몰래 내보내 줄 터이니, 서둘러 되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송씨해녀는 너무나 고마와하면서 몇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데 인간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나가는 동안에 결코 뒤를 되돌아보아서는 안됩니다.”

龍宮美女는 정색하면서 당부했다. 송여인은 서둘러서 인간세상길로 나섰는데, 그 神秘로운 龍宮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충동에 겨워 그만 자기도 몰래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이 때 송씨해녀 앞에는 느닷없이 눈이 부리부리한 龍宮 守門將이 나타났다.

“네가 감히 어찌하여 이곳엘 왔느냐?”

떨리는 목소리로 송씨해녀는 그 경위를 말하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간곡히 빌었다. 만약 인간세상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아흔살의 嫗父와 여든살의 嫗母를 모실 길이 없음을 호소하면서 살려 주기만을 애걸복걸했다.

“참 딱한 일이구먼, 나도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龍宮 守門將으로서는 펴 안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수문장은 옆엿 사람과 잠깐 귀엣말을 주고받더니, 송여인에게 마땅히 살려 돌려 보내어서는 안되지만, 老父母를 모셔야 된다니 특별히 내보내므로 어서 돌아가라고 했다. 수문장의 말이 있자마자, 송여인이 이 龍宮으로 들어올 때 만났던 그 강아지가 다시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대었다. 송여인은 그 강아지의 뒤를 졸졸 따라서 龍宮에서 나와 보니, 바로 ‘용궁울레’에 이르게 되었다.

송여인이 龍宮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은 삼시간에 마을에 퍼졌다. 그후부터 그곳은 龍宮으로 가는 길목이라 하여 ‘용궁울레’라 부르게 되

었다. 이 ‘용궁올레’ 바로 옆에는 10여m쯤의 칼날 같은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는 ‘갈선드리’라 이른다. 세상사람들이 南海龍宮에 함부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방패로서 세워진 다리라 한다.

이처럼 그 깊은 바닷속에는 南海龍宮이 있다고 알려진 다음, 가뭄이 오래 끌 때에는 旌義鄉校에서 그곳에 가서 祈雨祭도 지내곤 했었다.

(《濟州說話集成(1)》, pp. 683~688,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1985)

#### 4. 고래등에 붙은 전복 탄 해녀

대포리(西歸浦市 大浦洞)에서는 한 해녀가 전복·소라 등을 흔히 캐게 될 때면 “그 잠수(潛搜)고래 등이나 굽었는가?” 하고 反問하기 일수다. 이런 표현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대포리에 사는 제보자 김재현(남·85)의 할머니는 이웃 여인들과 함께 물질하러 다니는 것이 삶의 큰 보람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태와 망시리 따위를 챙기고 두여인은 물질을 나섰다. 대포리에서 월평리로 가는 ‘검주아리깍’이라고 한 바다로 나갔었다. 이른바 ‘검주아리깍바당’이란 그 지경에 ‘검주아리’란 논이 있는데, 그 ‘깍’(떨어나간 끄트머리)에 위치한 바다이매 붙여진 이름. 두여인은 이 바다에서 엄청난 만큼 전복을 캐었다. 해녀 두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서 올 수 없을 분량이었다.

이 소식이 그들의 집에 전갈되자 발갈이소 두마리를 머슴들이 몰고 갔다. 전복은 소에 싣고 머슴들이 지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뜻밖의 橫財로 어쩔 줄을 몰랐다.

엄청난 橫財로 상기된 두여인은 그 이튿날에도 으레 그곳으로 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무자택질해서 아무리 찾아 보아도 어저께 전복을 술하게 캐었던 그 ‘여’는 나타나질 않는다. ‘여’란 바닷속에 뿌리박힌 큼직한 暗礁로서 썰물일 때에는 그 옷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전복이 나 소라는 이러한 ‘여’에 숨어서 자라게 된다. 바로 이곳에 있는 ‘여’에서 전복을 줍다시피 캐었었는데, 그 ‘여’조차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니, 이게 무슨 變故란 말인가. 이바다가 ‘검주아리깍바당’ 입에 틀림이 없고 무슨 꿈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무슨 변환이란 말인가. 제 눈을 의심하면서 두해녀는 다시 아무리 살펴 보아도 분명히 ‘여’는 눈에 띄질 않는다.

“우리가 어제 그 많은 전복을 캐었던 곳은 여가 아니라, 그것은 고래의 등이었구나. 고래 등에서 전복을 캐었었구나. 우린 고래 등을 줌었구나.”

한여인이 어이없이 증얼거렸다. 그 여가 온데간데 없으니, 바로 어저께 슬하게 캔 전복은 고래 등에 붙었었다는 상상은 설득력을 지녀서 이내 전설처럼 주변으로 번져 갔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전복·소라를 흔히 캔 해녀를 두고 “그 짐수 고래 등이 나 줌었는가”하는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韓國口碑文學大系9~13》, p. 26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參照)

### Ⅲ. 海女社會의 民間信仰

海女社會의 民間信仰을 전폭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海女社會 全般을 거론해야 한다. 그 信仰心意와 民俗的 觀念은 해녀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村落共同豐漁祭인 영등굿과 潛女굿, 羅州金氏의 祖上神 神話로 알려진 구슬할망본풀이만을 살피기로 한다.

#### 1. 영등굿

濟州의 豐漁祭인 영등굿을 간추리는 이 글은 필자의 관찰과 이제까지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녀들의 信仰心意를 살피는 데 焦點을 둔다. 곧 창망한 바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裸潛漁業에 종사하는 해녀들이 얼마나 至誠으로 영등굿을 치러 오는가에 치중하면서, 그 性格과 神名·祭名·祭日, 祭期中의 俗信 및 영등굿의 實相과 海女生活과의 聯關등을 고찰해 보려 한다. 따라서 이 글은 玄容駿<sup>8)</sup>의 조사 연구를 토대로 宋錫夏<sup>9)</sup>·張籌根<sup>10)</sup>의 작업에 힘

8) 玄容駿; “濟州島의 영등굿”, 《韓國民俗學》創刊號, 民俗學會, 1969.

입은 바 컸음을 우선 밝힌다.

## 1. 性 格

영등굿은 제주도와 韓本土 南部地方 海岸 일대에서 옛부터 전승되는 豐漁祭다. 韓本土에서는 個人儀禮로 치러지는 이 豐漁祭가 제주도에서는 어부와 해녀들이 함께 치르는 마을굿, 곧 海村의 集團儀禮로서의 성격을 띤다.

한본토에서는 이 영등굿의 神名을 ‘영등할만네’·‘영등할멈’·‘영등할머니’·‘영등할마시’·‘영등바람’·‘풍신할만네’·‘영등마고할머니’, 제주도에서는 ‘영등’ 또는 ‘영등할망’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女神의 性格이 通常이지만, 가끔 ‘영등하르방’ 등 男神으로도 나타나서 女神·男神 어느쪽인가 함이 논의된다. 現象世界를 넘어선 神의 세계에는 男性도 없고 女性도 없고 男女 兩性이 한몸에 결합된 存在, 곧 男女合一의 存在만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女神 아니면 男神이라는 단점은 그 뜻이 없을 줄 안다.<sup>11)</sup> 한본토 남해안 일대에서는 영등神을 風神으로 믿어 왔다. 바람은 곧 海上漁業과 밀착되어 있으며 風神이 점차 漁業을 관장하는 神으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경우는 海上安全, 豐漁, 海女採取物의 增殖保護神의 性格을 띠어 왔다. 물과는 달리 언제나 위험이 도사린 바다를 대상으로 生業에 종사하는 海女나 漁民들로서는 海上安全과 豐漁를 祈願하는 마음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녀가 밀집되어 있는 제주도에서는 영등굿의 傳承이 더욱 끈덕지게 이어지면서 集團으로 영등굿을 치르며 致誠하는 熱意가 극진해졌으리라 믿는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光復前까지만 하더라도 漁村에 국한하지 않고 農業단을 짓는 산간마을에서도 일부 치러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럭저럭 사라

玄容駿; “躍馬戲考: 영등굿에서의 競漕民俗”,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0.

9) 宋錫夏; “風神考”,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10) 張壽根; “濟州島豐漁祭”, 《韓國民俗論叢》, 啓蒙社, 1986.

11) 이은봉; “남녀양성의 합일과 그 상징”, 《佛敎思想》 1987년 2월호(通卷 37號) 佛敎思想社, 1987.

저서 이제는 몇몇 漁村에서만 전해진다.<sup>12)</sup> 영등굿은 본디 漁村의 豐漁部落 祭였는데 점차 농사만 짓는 산간마을로도 뻗쳐 나갔다가 다시 본디 모습 대로 산촌에서는 사라지고 오늘날엔 일부 어촌에서만 남겨진 것이라 보고 있다.

## 2. 神名·祭名·祭日

神名은 ‘영등’ 또는 ‘영등할망’이라 하고 祭名은 대체로 ‘영등굿’이라 불리고 있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영등맞이’ ‘영등손맞이’, ‘영등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치러진다.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루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보름에 떠난다는 外來神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곧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루에 江南天子國 또는 의눈배기섬으로부터 제주도로 들어오고 제주도의 해안을 한바퀴 돌면서 건복·소라·미역·우뭇가사리 등의 씨를 뿌려 줌으로써 海女生業에 登豐을 선사하고 난 다음에, 2월 15일에는 城山浦 앞의 半島를 거쳐 제 나라도 돌아간다고 전승된다. 따라서 영등神은 女來神이다. 이 傳承에 근거해서 음력 2월 1일에는 영등환영제를 치르고, 2월 14일과 15일에는 영등송별제를 치른다. 단조로운 영등환영제에 비하여 영등송별제의 경우는 규모가 크다. 곧 영등환영제의 굿은 큰 배의 船主 중심으로 오진중에 간소하게 치러지지만, 송별제 때에는 漁民과 海女들이 온통 모여들어 종일 떠들썩한 굿판을 벌인다. 영등환영제든 영등송별제든 민간에서는 그대로 ‘영등굿’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예전에는 음력 2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줄곧 굿을 치렀던 듯하다.

## 3. 祭期中의 俗信

영등굿 祭期中의 俗信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2) 1969년 玄容駿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의 경우 農村 두마을(涯月邑 下加里, 舊左邑 松堂里)까지 포함하여 영등과 관련이 있는 堂祭는 15마을에서 채러지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㉑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음력 2월 초하루의 날씨가 추우면 옷을 치레한 영등이, 날씨가 다스하면 옷을 벗은 영등이 왔다고 하고, 그 날에 만약 비가 내리면 우장을 쓴 영등이 왔다고 본다.

㉒ 영등달 곧 음력 2월달이 되면 바닷가의 보말(보알고동·각시고동·밤고동·올타리고동·명주고동 등) 들이 온통 속이 비어 버리는데, 이는 영등할망이 왔다가 간다는 標識로 해안을 한바퀴 돌아다니면서 살살이 까먹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sup>13)</sup>

㉓ 영등굿을 할 때에 심방(무당)이 海藻類나 農事의 豐凶을 점치는데, 주민들도 이 占卦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다. 곧 심방이 점을 쳐서 “영등할망이 미역씨 주머니를 잊어 버리고 왔다”고 하면 미역 흥년이 들고, “미역씨를 바다에 뿌리고 왔다”고 하면 미역이 잘 나며, “산뉘(밭벼·山稻), 또는 좁쌀 등을 가져 왔노라”하면, 그 곡식이 풍년든다고 한다.

㉔ 영등할망이 제주도에 머무는 음력 2월초에서 보름 동안에는 배를 타서 나가거나 배를 놓아 漁業을 해서는 안되며, 빨래도 삼간다.(빨래를 해서 물을 먹었다가는 그 집에 구더기가 일게 된다고 한다.)

#### 4. 영등굿과 潛女굿의 實相과 海女生活과의 聯關

제주도의 영등굿은 이미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8 濟州牧 風俗條에 다음과 같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꽤 오랜 듯하다.

2월 초하루에 歸德·金寧 等地에서는 나뭇대 열두개를 세워서 神을 맞이하여 제사를 치른다. 涯月에 사는 사람들은 떼 모양을 말머리와 비슷하게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메물이놀이(躍馬戲)를 해서 神을 즐겁게 했다. 보름이 돼야 끝내니, 이를 燃燈이라 하며, 이 날에는 乘船을 금한다.<sup>14)</sup>

이 기록은 영등굿에 대한 ① 祭期, ② 祭名 및 ③ 集團祭儀의 性格을 밝

13) 필자가 1987년 2월 舊左邑 東金寧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력 2월에는 보말뿐이 아니라 집복·소라 따위도 속이 비어 버린다 하고, 이는 영등할망이 다녀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여, 58 김경성·여, 75 정순덕 등의 말)

14)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等十二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娛神 至望日乃罷謂之燃燈 是月禁乘船.

했고, ④ 祭期 동안에 乘船을 금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영등굿과 일치한다. ‘躑馬戲’의 해석을 槎(槎)를 노 저어 몰아가는 競漕民俗인 ‘메물이놀이’(제주어로 ‘데물이놀이’)라 보는 것은 玄容駿의 견해에 따랐는데, 外國에서도 이런 習俗은 꽤 전해진다.<sup>15)</sup>

영등할망이 해녀들의 삶을 관장한다는 사실은 巫俗神話 본풀이에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無形文化財로 지정된 제주시의 칠머리당의 堂神본풀이<sup>16)</sup>에 보면, 그 主神으로서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요왕해신 부인이라는 夫婦神을 설정했다. 그 婦神인 요왕해신부인은 萬民 海女와 上船·中船을 차지하고 西洋各國 東洋三國에 간 모든 자손들을 차지해서 長壽長命과 富貴功名을 시켜 주는 堂神이 되었다고 풀이된다. 이처럼 그 堂神본풀이에서도 해녀들의 生業과 밀착된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도원수감찰관은 두드러진 武勳을 세움으로써 天子의 환심을 사고 論功行賞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도원수감찰관은 이를 뿌리치고 龍王國에 가서 요왕해신부인을 맞아들였다. 龍宮—바다—海女와의 관련성이 밀받침된 듯 그 婦神은 해녀의 물질이나 漁業 전반을 관장하게 되었다고 설화된다.<sup>17)</sup> 또한 그 婦神이 海女나 漁夫는 물론, 西洋各國, 東洋三國에 간 모든 자손들까지 관장한다 했으니, 지난날 韓半島 各沿岸과 日本·中國·러시아 등 東北아시아 일대에 出稼했던 제주도 해녀들까지 모두 포괄된다는 말도 된다.

영등굿의 本來的인 性格이 海女 採取物의 增殖祭이므로 해녀질이 극성스런 北村里(北濟州郡 朝天邑) 등에서는 ‘海女굿’, 또는 ‘潛嫂굿’이라고도 일컫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영등굿은 치르지 않고 ‘潛女굿’(흔히 ‘잠네굿’이라 일컬으며 ‘잠수굿’이라고도 한다)을 치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舊左邑 東金寧里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 8일에 아침 9시경부터 저녁 5시까지 잠네굿을 성대히 치른다.

15) 清水純; “船競漕の文化潮流”, 《蒼海訪神うみ》 pp. 47-56, 旺文社, 1985.

16) 濟州市 健人洞의 ‘濟州칠머리당굿’은 1980년 11월 17일 無形文化財 제71호로 지정되었는데, 그 技能保有者는 安士仁(1928年 7月 3日生, 濟州市 龍潭一洞 421)이다.

17) 玄容駿; 《濟州島神話》, pp. 233-234, 瑞文堂, 1976.

잠깐 잠네굿의 實相을 간추려 본다. 논의하는 영등굿과 밀착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음력 3월 8일(4월 5일)에도 東金寧里 바닷가에서는 잠네굿이 마을 잔치처럼 벌어졌다. 東金寧里의 방과제 옆 海女共同脫衣場이 있는 <사계알>이라는 바닷가에서 자그만 그 共同祭儀는 진지하게 베풀어졌다. 예전에는 잠네 굿을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치러 왔었으나, 마침 그날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사나와지면 불편해서 이 건물을 마련하고 굿을 치러 온다.(평소에 이 건물은 海女採取物을 정리하는 곳으로도 활용된다.)

굿하는 건물 북쪽으로는 덧가지에 紙錢을 매단 十王門과 祭床이 마련되고 設床된 구석에는 서낭기가 휘날린다. 서낭기 깃대에서 ‘요왕다리’(龍王이 降神하는 다리)라는 廣木이 굿하는 건물에 드리워졌다. 굿집에 設床된 천정에는 水協支部, 水協總代, 國校, 中校, 里長, 警察支署, 舊左邑 金寧出張所 農村指導所, 保健所, 郵遞局 등 각기관 내지 기관장의 명칭이 白紙에 가지런히 쓰여져 매달아졌고, 5개동의 해녀회장과 봉지동·신산동·청수일동 등 동네별로 해녀들의 이름과 연령이 백지에 나열되었다. 또한 보성호·대성호 등 漁船의 이름들이 22척이나 나열된 백지도 보인다. 이리하여 잠네굿은 해녀들만의 海上安全관 採取物의 登豐을 위한 의례로 그치질 않고, 온마을 共同의 渾然一體된 祭儀의 性格을 띤다.

굿이 치러지는 도중에도 각기관장과 유지들은 찾아들어 祝儀봉투를 상에 올리고 배례를 한다. 굿판이 벌어지는 건넌 길가에는 점심나절 마을의 남성들이 모여 앉아 음식을 들며 즐긴다. 제주도에는 女性의 巫俗儀禮와 男性의 儒式儀禮의 二重構造를 이룩함이 보편적인데, 잠네굿만은 여성위주이긴 하면서도 남성들도 함께 參與, 支援하는 온마을의 儀禮요 祝祭的 性格을 띠고 있음이 유다르다.

文順實(女·27세, 無形文化財 제71호 濟州칠머리당굿 傳受生)의 주제아래 초감제~세경본풀이~요왕맞이 등의 祭次로 굿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굿집 안팎에는 수십명의 해녀들이 지켜 앉아 함께 參禮한다. 眞摯한 표정으로 가끔 “아이고 다 막아 줘서”(厄運을 모두막아 주시라는 뜻), “아이고 고맙수

다”하면서 허리를 굽혀 손을 비비며 빈다. 질침이 끝나고 지아뿔으로 들어가 祭物을 바다에 힌껏 던지고, 해녀들은 멩텅이(떡서리)에 좁씨를 가득 담은 할머니와 섞여서 <서우젓소리>를 한참 부른 다음, 방파제로 재게 달려가며 바다에 좁씨를 뿌림으로써 굿은 마무리된다.

좁네굿은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海上安全과 豐漁祈願을 위해 배풀어지는 온 주민의 村落共同祭儀이면서 마을의 祝祭的 性格도 띠었음이 實感된다.<sup>18)</sup>

영등굿 논의로 환원하기로 하자. 영등굿의 祭次는 어떠한가. 그 祭次는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굿을 치르는 과정에 해녀질의 安全과 海女採取物의 增殖을 비는 대목은 여럿 드러난다. 그러면 영등굿이 주장이면서 本郷堂神에 대한 굿은 일부 걸들이는 정도인 칠머리당굿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칠머리당굿의 主要祭次는 초감제~본향듬~요왕맞이~마을 도액막음~씨드림~배방선~도진 등이다.

請神을 하고 饗宴, 祈願을 하는 基本儀禮가 초감제인데, 요왕맞이를 치르면서도 請神과 饗宴, 祈願을 二重으로 되풀이한다. ‘요왕맞이’란 곧 ‘龍王맞이’로서 바다를 관장하는 龍神에 대한 致祭다. 영등굿에서 영등神과 더불어 龍神에 祭儀하는 까닭은 영등神의 主機能이 海女採取物의 增殖과 漁業의 保全이며, 영등神과 龍神은 그 機能上 서로 밀접히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초감제에서든 요왕맞이에서는 天地의 形成과 人文現象의 성립을 풀이하고 (배포도업침), 굿하는 날자와 장소를 알리는 祭次(날과 국 섬김)를 치른 다음에는 이 굿을 치르게 된 연유를 알리는 연유담음이란 祭儀로 들어선다. 연유담음에서 심방은 여러 龍神들에게 한해 동안 海上의 安全을 비는 소원 때문에 이 굿을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영등할망에게는 전복씨·소라씨·미역씨 등을 가멸지게 주고 가시라는 뜻에서 이 굿을 치른다고 그 연유를 아뢴다. 여기에서 전복씨·소라씨·미역씨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곧 전복·소라·미역 그 자체는 해녀들의 生計를 지탱해 주는 資源이란 점에서 그 祈願이 썩 절실할 수밖에 없다. 더

18) 東金寧里의 해녀들은 좁네굿하는 날을 ‘국군의 날’·‘어버이날’ 등의 國定公休日처럼 ‘해녀의 날’이라고 강조한다.

구나 심방은 해녀와 선원들의 切迫하고 困窮한 삶을 어련히 호소하고, 위험이 도사린 海原에서의 위태로운 물질을 치르면서 자식들의 成就를 절실히 바라는, 해녀들의 實情과 心境을 변호, 기원한다. 이러한 심방들의 간곡한 기원을 들으면서 해녀들은 저들의 實情, 저들의 苦惱, 저들의 希願을 代辯, 辯護해 주는 심방의 사실내용에 一體感을 이루면서 情緒的 窓口를 찾는 터이다.

요왕맞이에서는 또한 방광침이란 祭次가 있다. 海女作業이나 漁撈作業을 하다가 액긋이 水中孤魂이 된 혼령들에게 술을 드려 위안하고. 이 孤魂들을 彼岸으로 인도해 주도록 龍王神에게 비는 祭次다. 그만큼 海原에서의 不意의 事故가 잦고. 이로 말미암은 傷心의 도량이 깊다는 증거다.

요왕맞이에서 방광침이 끝나고 요왕문(龍王門)이 열린 다음에는 지아웁으로 들어가는데, 이 역시 龍王神이나 水中孤魂에게 白紙에 쓴 祭物을 던져서 대접하는 祭次에 해당된다. 곧 영등굿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차려온 祭床에서 갖가지 祭物을 조금씩 떼서 白紙에 찐다. 龍王神 뭇, 서낭신 뭇과 더불어 제각기 집안 식구와 作故한 영혼의 뭇을 싸기 때문에 이른바 ‘지’ 싸는 수효는 둘에서 여나흔까지 일정하지 않다. 다음에는 ‘지’를 갖고 바닷가로 내려가서 물결치는 바닷속으로 심방의 기원하는 사실과 함께 ‘지’를 힘껏 던진다. 이를 “지 아웁다”고 한다. 이 ‘지아웁’은 해녀나 어부들의 간곡한 기원이 實感 있게 具象化되는 과정이어서 密度 있는 信仰心意가 어련히 드러나게 된다.

영등굿은 ‘씨드림’이란 祭次에 이르러 그 實感이 더욱 高調된다. ‘씨드림’은 곧 播種을 뜻하는데, 해녀들이 바다로 달려가서 줍씨를 힘차게 뿌림으로써 전복·소라·우뭇가사리 등이 풍년 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農耕儀禮를 漁業儀禮에 類推, 適用한 象徴의 祭次라 할 것이다. 심방이 요란스런 樂器 소리에 맞추어 소라·전복씨 주고 가시라는 사실이 歌唱되는 동안, 해녀들은 신나게 춤을 추다가 바다로 달려가서 소라·전복씨 뿌리니 많이 열려서 우리 해녀들이 잘 살게 해 달라는 외침과 함께 모두들 줍씨를 바다에 힘껏 뿌린다. 씨 뿌리기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는 심방이 돛자리에 줍씨를

뿌리면서 그 해의 海産物은 어느 바다에 豐年이 들고 凶年이 들리라는 씨절을 친다. 해녀들로서는 海藻類·貝類의 豐凶與否가 그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좁쌀을 창망한 바다에 뿌림으로써 海産物의 登豐을 비는 이런 祭次는 더욱 實質的 現實感이 드러난다.

마지막에는 영등신을 본국으로 致送하는 祭次인 '배방선'으로써 영등굿은 마무리된다. 미리 짚으로 만들어 두었던 약 50cm 길이의 배모형 위에 모든 祭物들을 조금씩 떠놓고 이 배모형을 漁船에 실어 나가서 牛島쪽으로 띄워 보낸다.

영등굿은 이처럼 그 祭次에서 漸層的 強調를 이룩하면서 해녀들의 實情과 希願을 具象的으로 풀어헤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영등굿 特有的性格이 제주도 海村의 共同體的 祭儀로서 굳혀지고, 주민들의 強烈的 信仰心意를 바탕으로 끈질긴 不易性을 지닌 채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터이다.

## 2. 구슬할망 본풀이(羅州金氏 祖上神 본풀이)

구슬할망 본풀이는 羅州金氏의 祖上神 본풀이다. 巫俗神話 본풀이는 一般神 본풀이와 堂神 본풀이 및 祖上神 본풀이로 나눌 수 있는데, 구슬할망 본풀이는 祖上神 본풀이의 일종이다.

이 구슬할망 본풀이를 여기에 소개하는 까닭은 海女作業 등 제주도 특유의 사정이 密度 있게 깔렸기 때문이다. 곧 제주도민들은 물과 바다에서 身命을 걸고 獻身沒入해야만 生計를 꾸려 나갈 수 있음을 寫實的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제주여인들은 시퍼런 海原에서 怒濤와 싸우며 裸潛漁業하고 전복·소라·우뚝가사리 따위를 採取해야만 찌든 家計가 지탱된다는 實情을 잘 드러내 준다. 그리고 이곳 바다에서는 옛부터 珍寶한 眞珠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슬할망이 켜 眞珠를 임금께 進上했다고 說話됨을 보면, 제주도민들은 옛부터 進貢하는 일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음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구슬할망 본풀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 朝天邑 新村里 마을 북쪽동네 큰물거리에 살던 김사공은 濟州牧에

서 進上하는 버섯·전복·청각 등 제주도의 特産物을 싣고 험한 파도를 헤치며 서울을 자주 드나들었었다.

어느 해 역시 김사공은 上京하여 進上品을 바치고 난 다음, 제주도로 돌아오려고 캄캄한 밤에 터벅터벅 서대문 밖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웬일일까, 느닷없이 이 고요한 밤에 사람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 오다니.

—한밤중에 이 무슨 변고인가.

미심쩍은 김사공은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쫓아서 쟁 걸음으로 다가가 보았다. 호젓한 논두렁에서 아리따운 한 처녀가 훌훌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정을 물어 본즉 자기는 許政丞의 딸인데 그만 부모님의 눈에 거슬려 집안에서 버림을 받고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운다는 것이었다. 김사공은 안쓰러운 나머지 갖은 말로 타일러 보았으나 막무가내였다.

“저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 주시려면 데려가 주십시오.”

“아가씨의 말은 듣고 보니 딱하기 그지없소마는, 나는 제주 사람ियो. 제주 사람 서울 못 오고, 서울 사람 제주 못 가는데, 내가 아가씨를 데려가기는 참 난감하군요.”

“제주도라도 좋으니 굳이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도 큰 인연인데 제발 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코 매달리는 처녀애를 차마 싸늘히 뿌리칠 수가 없어서 김사공은 그녀를 도포자락으로 감추고 제주도로 데려왔다. 제 집에 처녀애를 데려간 김사공은 바깥에 소문이 번지지 않도록 방문을 잠그고 숨겨 두었다.

세월은 흘러 처녀애도 어느덧 열여덟살이 되었다. 그녀는 어느날 남쪽 창문을 열어 놓고 무심결에 바깥을 내다보다가 문득 질문을 던졌다.

“저분들은 무슨 매문 소를 물고 가는 것이며, 머슴들이 등에 진 것은 무엇입니까?”

김사공은 이내 제주 사람들은 모질게 일을 해야만 굶튼튼히 살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것은 머슴들이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서 밭을 갈러 가는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녀는 또한 북쪽 창문을 열어 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저 바다에서 들려 오는 호오이 호오이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물었다. 마치 석가모니께서 宮殿을 버리고 出家하실 때 던진 의문과 비슷한 질문이었다. 그것은 ‘숨비’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여자들도 시퍼런 바다를 밭처럼 여기고 테왁·망시리·빚창 따위를 챙기고 바다속 깊이 무자맥질해 들어가서 전복·소라·미역 따위를 캐어 나오며 깊은 숨을 내뿜어 돌이키는 소리라고 김사공은 천천히 알려 주었다.

그러자 그 처녀애는 자기도 저렇게 무자맥질을 하고 싶다고 간원했다. 김사공은 이내 해녀도구를 마련해 주었다. 처녀애는 물질에 뛰어나서 곧 大上軍이 되었다. 우등통 살찐 큰 전복 1천근과 작은 전복 1천근을 캐곤 했다. 더욱이나 그 전복 속에서는 珍貴한 眞珠가 닷 말 닷 되나 쏟아졌다.

김사공은 어느새 甲富가 되었고, 드디어 許政丞의 따님은 김사공과 百年佳約을 맺기에 이르렀다. 어느날 허정승의 따님은 정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眞珠를 많이 캐게 되었음은 필연코 天運에 따른 것이므로 임금님께 進上함이 어떨까 합니다.”

김사공은 아내의 뜻을 可賞스럽게 여기고는 眞珠를 배에 가득 싣고 서늘에 가서 임금님께 바쳤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精誠을 기특하게 여기고, 무슨 벼슬이라도 좋으니 소원을 서슴없이 말하라는 것이었다. 큰벼슬은 자기로서 분수에 넘치는 일이고 同知벼슬이나 내려 주도록 겸허하게 청원하였다.

“참 기특한 마음이다.”

임금님은 자그마한 벼슬을 원하는 마음씨를 대견스레 여기면서 김사공에게 同知벼슬을 내어주고, 그의 부인에게는 七色구슬을 선물로 하사하였다. 이리하여 허정승 따님을 ‘구슬할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김동지영감과 구슬할망 사이에는 딸만 아홉을 두게 되었다. 이들 부부도 점차 노쇠해 갔다. 노부부 자신들도 기력이 없어지고 老衰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느날 딸 아홉자매를 한자리에 불러 앉혔다. 구슬할망은 遺言 비슷하게 무거운 음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자, 너희들이 잘 아다시피, 우리 부부는 예전에 술한 眞珠를 임금께 바쳤더니, 너희 아버지는 同知벼슬을 얻고, 나는 구슬을 하사받게 되어 ‘구슬할망’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딸 아홉에 술한 자손이 달려 줄이 떨어갈 터이니, 너희들은 명절 때나 기일제사 때에 고방에서 우리에게 床을 바치고, 큰곳 작은곳 치를 때엔 풍악으로 내 간장을 풀어 달라.”

그후 딸들은 아홉 마을에 제각기 시집을 갔다. 아홉 딸들은 어머니의 遺言에 따라 명절이나 제사를 치를 때마다 고방에 設床하여 부모를 모시게 되었고 점차 딸의 자손들은 여러 마을로 번창해 갔다. 그리하여 구슬할망은 羅州金氏 집안의 조상으로서 그 家門의 자손을 保全하고 繁榮케 하는 祖上神이 되었다.

#### IV. 海女器具概要 및 그 慣行

제주해녀들이 사용하는 주요한 海女器具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規格·機能은 어떠한지, 海女器具에 따른 習俗은 어떠한지를 살펴 볼까 한다. 海女作業에는 <터우>라는 데(筏)와 海女船들도 옛부터 쓰여 왔으며 함께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在來綿服에서 고무옷으로 改變된 海女服도 고찰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해녀들의 採取道具만을 간추려 그 實相을 밝히는 가운데, 이에 얽힌 慣行도 곁들일까 한다.

##### 1. 눈(水鏡)

예전으로 치올라가면 제주해녀들은 눈에 水鏡을 안 끼 채 물질했던 때가 있었다. 해녀들이 일상적인 말로는 <눈>이라고 일컫는 水鏡이 裸潛漁業 곧 물질을 하는 데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세기 초인 듯 推定된다. 그 까닭은 노파해녀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에는 水鏡 없이 작업했던 경험을 지녔거나, 水鏡을 안 끼고 물질하는 경우를 목격한 경우가 가끔 드러날 뿐더러, 水鏡없이 무자맥질을 했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證言하는 노파들이 있기 때문이다.

北濟州郡 牛島面 東天津里의 조완아(여·73)는 열살 즈음에 눈(水鏡)을 안 쓰고 물질하는 해녀도 가끔 목격했었고, 조노파 역시 어렸을 때에는 水鏡을 안쓴 채 물질을 치렀었다고 한다. 그 당시엔 水鏡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으므로 이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뿐더러, 더구나 제 顔面 모습에 알맞는 것을 갖추기는 더욱 힘들었기 때문이라 한다.<sup>19)</sup> 물질이 극성스런 마을이어서 이른바 ‘작은蔚山’<sup>20)</sup>이라고도 불리는 杏源里(北濟州郡 舊左邑)에는 이른바 ‘이명거리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살았었다. ‘이명거리’란 머리카로 머리를 잡아 묶었던 머리 모습. ‘이명거리할망’이란 이러한 머리모습으로 大上軍으로서 물질을 썩 잘했던 할머니라는 別名으로 알려졌는데, 고인이 되었지만 이 마을에서는 전설처럼 전해진다. 곧 ‘이명거리’로 머리만 묶었을 뿐 물수건도 안 쓰고 눈(水鏡)도 끼지 않은 채 무자맥질을 하기만 하면 전복을 한 멍텅이(떡서리)씩 캐었다고 전해진다.<sup>21)</sup> 또한 1975년 당시 89세의 大浦(西歸浦市)의 김수경노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물질을 시작할 당시에 눈(水鏡) 없이 무자맥질했었다 한다. 물속 깊이 들어가서 맨손으로 더듬더듬 만져 보아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소라나 전복인 줄 알고 캐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속에서 희끗희끗 너울거리는 것이 있으면 미역인가 짐작하고 캐었다고는 것이다.<sup>22)</sup>

예전에 水鏡을 안 끼고 물질을 했었음은 日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瀨川清子の 《海女》에서도 확인된다.<sup>23)</sup> 이 책에서 瀨川은 84세가 되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는 眼鏡 없이 물질 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눈(水鏡)은 작은눈(小型雙眼水鏡)과 큰눈(大型單眼水鏡)으로 구분된다. ‘작은눈’이란 작은눈이란 뜻인데, 보통의 眼鏡과 같이 左右 두알로 된 것이

19) 金榮教·金範國·徐庚林; “海女調査研究” p. 252, 《耽羅文化》 제 5 호,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6.

20) 杏源里는 主漁副農의 마을로서 해녀들의 물질이 퍼 극성스럼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濟州海女들이 흔히 出嫁하는 慶北 蔚山과 비슷하다고 해서 ‘작은蔚山’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21) 舊左邑 杏源里 이도화(여·82)의 말.

22) 《國文學報》 제 7 집(中文里學術調査特輯), p. 161,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1975.

23) 瀨川清子; 《海女》 p. 77, 未來社, 1970.

며, 큰 눈이란 左右의 두눈을 안경알 속에 덮어올 수 있게 된 모습이다. 韓國이나 日本의 해녀들은 오늘날 모두 큰눈, 혹은 왕눈이라는 大型單眼水鏡을 쓰고 있지만, 이에 앞서서 예전에는 작은눈, 또는 족세눈이라는 小型雙眼鏡을 우선 썼었다. 작은눈(족세눈)이 큰눈(왕눈)으로 대체된 것은 제주 해녀의 경우 1960년대의 일이다.

작은눈(족세눈)에는 <엄쟁이눈>과 <켓눈>이 있다. <엄쟁이>란 北濟州郡 涯月邑 新嚴里와 舊嚴里·重嚴里를, <켓>란 北濟州郡 舊左邑 漢東里를 가리키는데, 水鏡을 만드는 이가 각각 이 두마을에 살았었기 때문 붙여진 이름이다.

<엄쟁이눈>과 <켓눈>은 그 原型은 비슷하면서도 해녀들 각자의 顔面 모습과 生理에 따라서 택할 수 있도록 그 構造가 좀 다르다. 비교적 <켓눈>은 모든 이의 顔面에 맞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水深 깊은 水壓에서도 海底가 밝게 보일 뿐더러, 견디기 편하다는 게 해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비하여 <엄쟁이눈>은 水深 깊은 海底에서 작업하려면 視界가 시원칠 못할 뿐더러, 눈이 찡기어지고 가다가 出血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한다. 따라서 <엄쟁이눈>이 두냥일 때 <켓눈>은 비싸서 닳냥까지 갔었다 한다.<sup>24)</sup>

<켓눈>은 몇가지 틀이 있어서 각자의 顔面의 모습에 맞추어 썼었으므로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러 ヶ(北濟州郡 舊左邑 漢東里)까지 찾아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었고, <켓눈>을 맞추지 못했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쉬 구할 수 있는 <엄쟁이눈>을 사서 썼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엄쟁이눈>보다 <켓눈>이 먼저 생겼었다 한다.<sup>25)</sup>

작은눈(족세눈)에서 큰눈(왕눈)으로 改變되는 사이에 空氣주머니가 달린, 이른바 '후쟁안경'이라고도 하는 작은눈이 일부지방에서 잠깐 퍼뜨려졌었는데, 이는 日本의 영향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작은눈(족세눈)에는 <켓눈>과 <엄쟁이눈>외에 <섭눈>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構造는 같은 것이지만, 그 材料나 制作이 臨時方便인 것이어서 <켓눈>이나 <엄쟁이눈>을 제대로 갖

24)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이도화(여·82)의 말.

25) 北濟州郡 舊左邑 東金寧里 김매춘(여·59)·김경성(여·59)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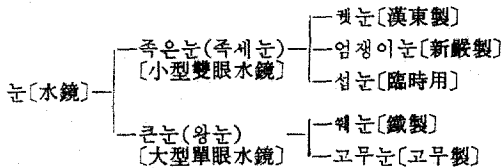
추지 못했을 때에 이 <삽눈>을 暗行商한테서 사고 임시 쓰곤 했었다.

큰눈(왕눈)은 그 가장자리가 쇠, 또는 고무로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쇠눈> 또는 <고무눈>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쇠눈>에서 <고무눈>으로 옮겨졌다.

큰눈 가운데에서도 먼저 나온 鐵製인 <쇠눈>은 눈 언저리를 압박했었는데, 나중 <고무눈>으로 대체됨으로써 썩 편이해졌으니, 오늘날에는 모두 <고무눈>을 애용한다. 또한 해녀들의 口傳에 따르면 <켓눈>이나 <업쟁이눈>이 생기기 앞서서 <쇠뿔눈>이란 것이 있었다 한다. 곧 쇠뿔을 잘게 잘라서 水鏡 테두리로 하고 유리를 박아서 썼던 터였겠는데, 이는 水鏡의 始源的 形態로 알려지고 있다. 西歸浦市 大浦洞의 한 해녀가(1975년 당시 89세) 밝힌 바에 따르면 그 해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水鏡을 안 낀 채 손으로 더듬으며 海底에서 採取하다가 15세쯤해서 쇠뿔로 만들어진 <쇠뿔눈>이란 것이 생겼고, 25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은눈을 쓰게 되었다 한다.<sup>26)</sup>

그리고 해녀들은 이 水鏡을 넣을 주머니, 이른바 <눈주머니>를 그물 따위로 自作해서, 이 속에 水鏡과 潛水時 귀를 막을 <밀>(密精)을 넣고 바다를 오가기도 한다. 또한 <눈주머니> 없이 水鏡을 허리에 차거나 <망시리>에 넣어서 다니기도 한다.

水鏡이 마련되기 前段階인 <쇠뿔눈>을 제외하고 제주해녀들이 사용해 오던 눈(水鏡)을 一覽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테왁

테왁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그 浮力을 이용하여 그 위에 가슴을 얹고 해

26) 《國文學報》제 7집(中文里學術調查特輯), p.171,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1975.

엄치는 데 쓰이는 기구로서 ‘두렁박’이라고도 한다. 물속으로 무자맥질할 때에는 물위에 띄워 두었다가 해녀가 水面에 떠올라올 때에는 이를 붙잡고 過度換氣作用을 하는 데도 쓰인다. 過度換氣作用은 ‘숨비’(숨비)·‘숨비소리’(숨비소리)·‘숨비질소리’(숨비질소리)라고 하는데, 잠간동안에 炭酸가스를 내뿜고 酸素를 받아들이는 일로서 ‘호오이’하는 휘파람소리 비슷한 소리가 바닷가에 메아리침으로써 異國의 情趣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테왁 밑에는 漁獲物을 넣어 두는 망시리(망사리·망아리·홍사리)라는 그물 주머니를 매달아 놓는다. 높이 25cm내외, 둘레의 직경 90cm 내외가 되는 테왁의 재료는 본디 박이었다. 지난날 農漁村에서는 박년출을 지붕 위에 뿔어 올려 재배하는 것이 상례였다. 박은 예전의 農漁村에서 多目的 用具로 쓰였었다. 제주도에서는 테왁을 만들기 위하여 11월말쯤 되면 박을 따낸다. 단단하고 굳은 것을 골라서 부엌 천정에 매달아서 충분히 말린다. 그해 年末에서 뒷해 2월 사이에는 말리던 박을 꺼내어서 직경 2cm쯤의 자그만 구멍을 꼭지쪽에서 뚫고 냇개비 따위로 속에 든 씨를 온통 꺼낸다. 그 구멍을 고무 따위로 막고 끈으로 엮어매면 테왁이 된다.

테왁을 엮어매는 끈의 材料는 사람의 머리털~〈미〉~신서란~나이론끈의 순서로 변천했다. 〈미〉란 참억새의 꽃이 채 패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發泡스티로올製 테왁이 釜山 등지에서 製作, 輸入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온통 이것으로 대체되었다. 이 發泡스티로올製의 테왁을 흔히 〈나이론테왁〉이라 일컫는데, 이의 對稱으로 박으로 만든 在來의 테왁은 〈꼭테왁〉이라 한다. (‘꼭’은 박의 濟州語) 〈꼭테왁〉은 스티로올製보다 浮力이 강하고, 망그러뜨리지만 앓는다면 그 耐用年數가 20년까지 간다. 스티로올製가 나올 무렵 플라스틱製 테왁도 한때 번졌었지만, 쉬 破損되기 쉬워서 그 유행이 짧았다.

테왁은 그 크기의 大中小에 따라서 〈큰테왁〉·〈중테왁〉·〈작은테왁〉으로 나누어진다. 〈작은테왁〉은 ‘작은테왁’이란 뜻인데, 여대여섯살 미만의 어린 소녀들이 물질을 익혀갈 때 쓰이므로 〈애기테왁〉이라고도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發泡스티로올製 테왁의 걸 형질을 赤·靑·白으로 제각기 구분해서

덜익음으로써 지정된 漁場에만 入漁하고 다른 漁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杏源里(北濟州郡 舊左邑)의 漁場은 杏源里民의 總有漁場이지만, 같은 마을 안에서도 自治의으로 그 漁場을 三分해서 세가지의 碇穴色을 정하고 해마다 配定된 漁場 안에서만 裸潛하도록 못박고 있다. 곧 三分된 漁場을 三分된 海女班이 해마다 번갈아 가며 入漁케 함으로써 마을 안의 모든 해녀들의 漁撈의 衡平을 도모하는 自律的 慣行이 이루어지는 터이다.

### 3. 망시리(망사리·망아리·홍아리·홍사리)

해녀가 채취한 海產物을 넣는 엉성하게 결어진 그물로 된 주머니인데, 碇穴 밑에 달려 있다. 망시리의 材料는 <미>(참억새꽃이 채 패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신서탄~남총~나이론의 순서로 바꾸어졌다. 옷부분은 트여 있고, <드랫줄> 등으로 된 圓形의 木製 <어음>이 있어서 그물이 이에 묶이어 길쭉이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윗쪽 지름이 40~50cm, 길이가 70cm 내외의 圓筒形인데, 아랫쪽이 더 넓다.

碇穴에 달리는 보통 망시리 외로 海藻類를 採取, 運搬할 때 쓰이는 커다란 망시리가 있는데, 이 大型의 것을 <걸망>이라고 한다. 이 <걸망>을 걸는 데는 짚줄이나 나이론줄 등의 材料가 100발 내지 125발 정도 소요되는데, 촘촘하지 않고 성기게 짜인다.

망시리는 <헛물망시리>와 <메역망시리>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少女用인 <죽은碇穴>에는 망시리 역시 <준망시리>가 달린다. <메역망시리>는 주로 미역 등 海藻類를 採取할 때 사용되며, <헛물망시리>는 <헛물질>을 할 때 쓰이는 것이다. <헛물질>이란 전복·소라·성게 따위를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海藻類 採取는 정해진 때 일정한 海藻類를 캐는 물질임에 비하여, 전복·소라 등 貝類採取는 禁採期만 아니면 年中 언제나 채취하지만, 그 一定量의 採取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헛될 수 있는 물질”이란 뜻에서 <헛물>·<헛물질>이라 일컫는 것이다.

망시리 안에는 自然石으로 닳돌을 장치해 두었다가(세로 10cm내외, 가로

15cm 내외) 닻줄에 느러뜨리우고 물속으로 무자맥질하는 동안, 데왓이나 망시리가 물결에 휩쓸려 흘러가지 않도록 固定시킨다. 우뚝가사리나 미역을 채취할 때엔 이 닻돌을 이용하지 않고, <첫물질>을 할 때에만 이를 물속으로 느러뜨리운다. 전북·소라 따위를 켈 때에는 데왓·망시리를 물위에 띄워 두고 潛水하는 동안이 비교적 오래기 때문인 줄 안다.

그리고 망시리 속에는 떡조개(오분재기) 따위의 자갈한 採取物을 넣기 위하여 자그마한 주머니를 매달아 놓는데, 이를 <조락> 또는 <그물수대>라고 한다. 또한 慕瑟浦 남쪽 加波島 等地에서는 해녀들이 무자맥질할 때에 자갈한 貝類를 넣어서 水面에 띄워 둔 망시리까지 운반하는 <좁망시리>를 허리에 동여뒀어서 쓰기도 한다. <바르츨리>(길이 45cm 내외, 어음 직경 18cm 내외)라는 기구를 망시리에 매달고 貝類를 넣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sup>27)</sup>

#### 4. 빗창

岩礁에서 전복을 떼어내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海女器具. 길이가 30cm쯤의 납작하고 길쭉한 쇠붙이인데 머리는 圓形으로 말아졌고, 그 구멍에 손잡이끈이 달려 있다. 그 손잡이끈은 사람의 머리털~나이론끈~고무줄로 변천되었다.

해녀들은 빗창의 손잡이끈을 손목에 감고 깊숙한 물속에서 岩礁에 단단히 달라붙은 전복을 떼어낸다. 전복은 水深 깊은 바위틈에 자라기 때문에 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숨이 가빠진다. 바위와 전복 사이에 빗창은 질러 놓았지만, 전복은 쉽게 떼어지질 않는다. 물질이 苦役이긴 하지만, 기쁨이 따른다면 물속에서 우뚝퉁 살찐 전복을 발견했을 찰나라고 해녀들이 吐露할 만큼 큰 전복 채취는 큰 喜悅이므로 한사코 빗창으로 떼어 나오려고 애쓴다. 그러나 전복은 쉬 떼지 못하고 손목에 감긴 끈도 풀리지 않을 窒息하여 숨지는 경우도 가끔 있다. 거의 해녀 개개인마다 전복 채취를 둘러싼 위태로운 체험을 지니고 있다. 意欲과 實情의 싸움인 셈이다. 東金寧里(北濟州郡 舊左邑)의 김매춘(여·59)은 전복이 얼른 떼어지지 않자 그들 채 들고

27) 《國文學報》 제 6 집(加波島學術調查特輯), p. 176.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1974.

나오다가 死纒을 해맨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빗창 끄트머리에는 노릇노릇 금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른바 빗창에 꽃이 필 경우면 그날에는 전복을 흔히 캘 수 있으리라고 점치기도 한다. 물 질하러 나갔을 때마다, 그날 처음으로 전복을 캐게 되면, 빗창으로 그 전복을 똑똑 두드리면서 침을 뱉고, “요왕할마님 고맙습니다. 요것드러 벗 부지게 하여 줘서”(龍王할머님 고맙습니다. 요것에 벗 붙이게 하여 주십시오)하고 빌기도 한다.

##### 5. 정계호미(중계호미·중계호맹이·물호미)

海藻類를 캐는 낫으로서 農具인 낫과 구조가 비슷하다. 곧 7字形으로서 낫과 자루의 길이가 각각 20cm 내외다.

濟州語로는 낫을 <호미>라 하는데, 농사할 때 쓰이는 <호미>나 해녀들의 <정계호미>나 얼른 보아서 그 構造가 비슷하다. 이 <정계호미>와 구분하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때의 <호미>를 <비호미>, 또는 <돌호미>라 일컫기도 한다. <비호미> <돌호미>는 날이 있는 쇠붙이를 나무자루 속에 끼워 박았지만, <정계호미>는 이를 따로 떼어내어 자루 바깥에 鐵系로 단단하게 잡아뒀었다. 바닷물 속에서도 그 쇠붙이날이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考案한 것이다.

##### 6. 꼴각지(꼴갱이·호맹이·까꾸리)

꼴각지(꼴갱이·호맹이·까꾸리)는 濟州語로 <꼴갱이>(꼴각지)라 하는, 밭에서 김을 매는 제주도의 호미와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서 섬계·문어 따위를 채취할 때 쓰이는 기구다.

제주도는 石多의 섬이기 때문에, 밭에도 돌맹이가 많아서 호미, 곧 <꼴갱이>의 모습도 가늘다. <꼴갱이>로 김을 맬 때에도 돌맹이에 걸리지 않게 가느다란 모습으로 꾸며진 것이다. 海産物을 캐는 <꼴각지>도 그 構造는 김을 매는 농기구인 <꼴갱이>와 비슷하지만, 海女器具로서의 <꼴각지>는 쇠붙이의 길이가 훨씬 긴 편이다. 다만 7字로 옥아든 끝부분이 좀 짧고, 나무자



루에 끈이 달리기도 한다.

곧 海女器具인 <꼴각지>는 30cm 내외의 가느다란 쇠붙이를 12cm 내외의 나무자루에 지르고, 쇠붙이 끄트머리는 더욱 가늘고 7字로 꼬부라지게 되어 있다. 섬계 채취용은 <성계꼴각지>(성계꼴갱이 성계호맹이·성계까꾸리)라 하고, 문어 채취용은 <몽계꼴각지>(몽계꼴갱이·몽계호맹이·몽계까꾸리)라 하는데, <몽계꼴각지>는 끝부분이 半圓形을 이루었다.

제주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꼴각지>(꼴갱이)와 <호맹이> 및 <까꾸리>를 구별하기도 한다. 곧 그 基本形態는 마찬가지로이면서도 그 모습이나 用途가 조금씩 다른 이들 海女器具를 제각기 구별해서 指稱하기도 한다.

### 7. 고통망시리(고동망사리·고동망아리)

소라를 넣어 두는 망시리(망사리·망아리)란 뜻이다. 제주에서는 소라를 ‘구쟁기’라 하는데, 그냥 ‘고동’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흔하다.

소라·전복 따위를 채취한 다음에, 그 流通過程에서 죽지 않도록 이를 바닷가 얇은 바닷물에 담가 두기 위하여 쓰이는 그물이다. 테왁에 달리는 망시리(망사리·망아리)와 그 구조가 비슷하지만, 테왁에 달리지 않고 獨自的으로 쓰이는 점이 다르다. 촘촘하지 않고 엉성하게 걸여졌다.

### 8. 갈궁이(갈꾸리·갈키)

배를 타고 나가서 넓미역을 채취하는 도구. 예전에 소섬(牛島面) 沿海일대에서는 여러 마을에서 백여척의 배가 몰려들어 넓미역 채취는 壯觀을 이루었다. 海底 모래 위에 자라는 넓미역을 이 <갈궁이>로써 캐어 올렸었다. 이 갈궁이에는 <갈궁이쌀> 열 한개 짝이 비스듬히 박혀져 있다. 곧 45cm 정도의 단단한 나무 여럿을 굵은 화살 모양으로 <갈궁이채>라는 나뭇도막에 비스듬히 박고 동여매어진 것이 <갈궁이쌀>인데, 이 <쌀>(살)들이 깊은 海底 모래벌판에 닿아져 넓미역을 긁어 올리는 것이다.

필자는 1969년 7월말 소섬에 조사나갔을 때의 넓미역 채취의 광경을 잊을 길이 없다. 소섬과 소섬 주변마을의 배들이 수십척이나 몰려들어 갈궁이로

넓미역을 채취하느라 下牛目洞 앞바다를 덮어 饗宴이 배풀어졌었다. 해녀들도 <又물질>로 넓미역을 캔다. 캐어 놓은 넓미역을 말리는 아낙네들, 이를 져 나르는 남정들, 食事를 나르는 등 뒷바라지하는 어린이들로써 바다와 바닷가는 온통 人海였다.

### 9. 공쟁잇대

<공쟁잇대>란 미역이나 들북이 파도에 밀려 바닷가에 물러 왔을 때 이를 걸러 올리는 기구다. 기다란 왕대에 V字形의 나무를 덧붙인 구조. <터우>(테·터위·테베·테우·테위·테베)라는 메(筏)나 낚싯거루를 타고 나가서 이 <공쟁잇대>로써 밀려온 海藻類를 채취하기도 한다.

### 10. 소살(작살)

작대기나 이대 끝에 뾰족한 쇠를 한두개 박아서 물고기를 찢어 잡는 기구. <소살>, 또는 표준어 그대로 <작살>이라고 하는데, 男子用을 그대로 해녀들이 쓴다. 지방에 따라서는 뾰족한 쇠가 한가닥인 것은 <소살>이라 하고, 두가닥으로 된 것은 <작살>이라 해서 구분하기도 한다.

이상 海女器具의 대강을 살펴 나가면서 그 構造와 機能 및 이에 따른 習俗도 가다가 곁들여 보았다.

海女服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려 하며, 海女器具만 하더라도 海藻類를 져 나르는 <바지개>, 집에서 漁場까지 해녀기구나 땀감을 넣고 가는 <구덕> 등 몇가지도 누락되었다.

여인들이 시집갈 때 해녀기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합도 흥미로운 조사과제다. 해녀들은 시집갈 때 해녀기구를 가져가지는 않는다. 親庭집에 해녀기구를 두어두고 시집간다. 결혼하게 되면 시집에서 <테와>·<망시리>·<빚창>·<증계호미> 따위를 알뜰히 장만하고 며느리에게 준다.<sup>28)</sup> 日本에서 結婚持參物로 해녀기구가 끼어 있는 관습과는 다르다.<sup>29)</sup> 漁村에서 해녀인 며

28) 北濟州郡 舊左邑 東金寧里 김매춘(여·59)·김경성(여·59)의 말.

29) 瀨川清子;《海女》, p. 244, 1970.

느리를 새로이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알뜰한 해녀기구를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띤다.

海女服이나 海女器具를 둘러싼 習俗이나 그 變遷過程은 개개인의 自生的 意思에 따른다기보다 集團과 環境의 影響이 甚다.

海女器具에 대한 자세한 解説과 圖解 및 이를 둘러싼 俗信 등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룰까 한다.

## V. 海女와 海女노래

〈해녀노래〉는 櫓 짓는 노래의 일종이다. 바다를 건너가거나 漁撈作業을 하기 위하여 櫓를 짓는 일이란 옛부터 세계 도처에서 傳來되어 오는 일이므로 〈櫓 짓는 노래〉, 혹은 〈벧노래〉란 最古普遍的 민요의 일종이다. 제주해녀 專有的 〈해녀노래〉는 일반적인 〈벧노래〉와는 구분된다. 곧 ‘海女’라는 특수한 職業人에 따라서 海女作業을 하기 위해 漁場을 오갈 때에 탄 배의 櫓를 저으며 부르는 민요라는 점에서 유별나다.

이 力動的인 〈해녀노래〉는 國內外에 類例가 없이 제주해녀에 의해서만 전승된다. 이 세상에 海女가 있는 곳은 韓國과 日本뿐인데, 韓本土나 日本의 海女들은 裸潛漁業하러 漁場을 오가면서도 櫓를 짓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주해녀들은 주로 櫓를 저으면서 〈해녀노래〉를 부르지만, 가끔 〈갯물질〉할 때 漁場으로 헤엄쳐 나가면서도 불렀었다.

해녀들이 櫓 짓는 동작과 밀착된 채 불리는 〈해녀노래〉는 그 가락도 유별스럽거니와, 그 사설이 가멸지므로 秀逸하고 優美한 〈갯돌·방아노래〉와 더불어 제주민요의 雙壁을 이룬다. 제주민요의 秀越性은 이 두가지 민요가 풍요롭고 절묘하게 傳承된다는 데 기초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오랫동안 몸으로 부딪치며 수집한 자료와 그 배경고찰을 바탕으로 《濟州島 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조약돌, 1983)에서 〈갯돌·방아노래〉와 함께 〈해녀노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 지역의 민요에는 그 地域民의 삶의 모든 것, 地域社會의 됄됨 모든 것, 地域民의 생각 모든 것을 담

고 있기 때문에 제주민요의 主宗을 이루는 이 두가지 민요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조사연구작업은 漢拏山처럼 쌓였다. 여기에서는 <해녀노래>의 實相을 간추리면서 研究課題의 몇가지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술한 勞動謠가 그렇듯이 오늘날 <해녀노래>는 이미 해녀들의 물질과는 분리되었으므로 人爲條件에 따라서만 수집될 수 있고, 自然的 歌唱機緣은 사라졌다. 다만 제주도 海村의 50대 이상의 해녀들은 그 保有能力이 어떠한 대체로 <해녀노래>를 기억한다. 제주도의 海村마다 그 수요가 어떻든 海女는 분포되어 있으므로 제주도 海村全域에 걸쳐 <海女노래>는 전승되어 왔고 제주도 해촌에서는 局地的으로 한정분포된 민요가 아니므로 비단 裸潛漁業現場과 流離되어 소멸되어 가는 노래이기는 하지마는, 그 傳承實態가 희귀한 勞動謠보다는 아직은 낫다.

제주의 <해녀노래>는 오늘날 그 가락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해녀들에 따라서 불리는 本來的인 <해녀노래>요, 또 하나는 舞臺위에서 演出되는 編曲된 <해녀노래>다. 後者は 학생들의 教育用으로 활용하고 일반에게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意圖에서 編曲된 <해녀노래>로서, 1960년대초부터 전파매체를 타고 널리 번져 나갔으며 文化祭 등의 行事가 있을 때 거둬 불림으로써 제주도내에서는 상당히 보급되었다. 요마적에 이르러서는 40대, 50대의 提報者들까지도 編曲된 <해녀노래>를 흥내내어 부르는 경우를 가끔 마주친다. 편곡된 것은 本來的인 <해녀노래>의 가락과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고 할까, 세월이 흘러가면 本來的인 <해녀노래>의 가락은 자취를 감추고 編曲된 <해녀노래>가 得勢할 조짐도 없지 않다. 原型의 <해녀노래>를 保存하기 위한 最善의 작업과 함께 이의 敎習, 繼承을 위한 編曲도 原型을 바탕으로 한 알찬 作業이 國樂專攻學者에 따라서 새로이 퍼져야 할 계제에 이르렀다.

<해녀노래>의 주된 歌唱機緣은 배를 타고 漁場에 출입할 때 탄 배의 櫓를 저어 나가는 경우다. 특히 한본토 연안으로 出稼할 때나 歸鄉할 때에는 며칠이고 晝夜長川 櫓를 저어야 했으므로 <해녀노래>를 부르는 동안도 그만끔 길어진다. 물결이 잔잔했을 때, 逆風이 불거나 물결이 거셀 때에는 그 가락

이나 사실에 屈曲이 일 것은 물론이다.

〈해녀노래〉는 獨唱으로는 불리지 않고 두사람 이상이 先後唱을 하거나 交唱을 하는 게 일반이다. 만약 〈해녀노래〉를 獨唱으로 口演한다면 그것은 人爲的 條件에 따랐을 경우인데, 이 점은 본디 獨謠(solitary song)인 〈맷돌·방아노래〉와 對比된다.

모든 勞動謠가 그렇듯 〈해녀노래〉의 各篇을 불러가는 순서는 固定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直前의 사실에 드러난 이미지나 語彙의 영향을 받은 聯想作用에 따른 併行體(parallelism by linking)의 경우가 가끔 드러날 뿐이다.<sup>30)</sup>

〈해녀노래〉의 口演은 櫓를 짓는 動作과 아주 密着되어 있다. 일하는 모습과 노래 가락과의 密着度는 〈맷돌·방아노래〉나 〈김매는노래〉 등에 비하더라도 〈해녀노래〉의 경우가 두드러지다. 따라서 〈해녀노래〉는 그들의 勞動을 간접 즐겁게 이끄는 機能을 지니면서 行動統一을 기하는 데 이바지한다.

〈해녀노래〉의 사실은 그들의 勞動, 곧 물질과 상관되는 내용과 勞動과는 상관이 없는 日常的인 實情과 情感을 노래하는 경우로 二分된다. 이러한 민요 사실의 兩分法은 모든 勞動謠에 고루 적용된다.

勞動謠의 사실 — A. 勞動實態를 노래하는 사실  
— B. 勞動實態와는 상관없이 전승자의 日常的인 實情과 情感을 노래하는 사실

한종류의 勞動謠에서 A의 비율이 높으면 그 민요의 사실은 별로 가다듬어지지 못하고, B의 비율이 두드러진 민요는 그 사실이 풍부하고 文學性도 배어나다. 대체로 作業狀況이 거칠고 슬한 사람들이 치르는 일에 따르는 민요는 A의 사실이 우세하고, 이에 비하여 일이 비교적 安定되고 참여하는 인원이 少數일 때에는 B의 사실이 가멸지고 정갈한 편이다. 〈맷돌·방아노래〉에 미칠 수는 없지만, 〈해녀노래〉 역시 B의 비율이 다른 노동요에 비하면 強勢를 드러낸다. 〈맷돌·방아노래〉는 〈해녀노래〉에 비하더라도 作業장소나 口演狀況이 固定되고 安定된 분위기에서 불리기 때문인 줄 안다. B에

30) 拙著;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pp. 84~86, 조약돌, 1983.

속하는 사실은 固定的이라기보다 流動的인 性格을 띠는 경우가 많다. 곧 B의 사실은 반드시 해녀작업하면서 <해녀노래>의 曲態로만 불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勞動을 하면서 불리는 사실이나 非機能謠의 사실도 流動的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흔하다.

<해녀노래> 사실의 主流에는 海原을 집안이나 밭과 다름없이 인식하면서 해녀질에 身命을 다 바치는 氣慨가 스며 있다. 역시 <해녀노래>가 불리는 背景인 해녀질은 거친 바다에서 裸潛漁業을 하는 特殊職種이기 때문인 줄 안다. 위의 A型的 사실 속에는 해녀질에 따른 意欲과 苦楚, 希願 및 해녀질의 實相이 어렵히 드러나 있다. 그리고 A型的 사실 상당부분은 島外 出稼過程과 出稼生活 등 해녀들의 出稼實態를 題材로 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東北아시아 일대의 바다를 무대로 하면서, 특히 韓半島 각 연안을 나갈 때에는 더욱 <해녀노래>를 즐겨 불렀었다는 증거다.

작업장을 오가는 배를 타서 糶를 짓는 動作과 密着된 채 불리는 <해녀노래>의 가락은 자못 力動的이요, 그 사실은 直說的인 색채가 짙다. 各篇 사실의 끝맺음이 疑問形인 경우가 많고 4·4調의 字數律이 일반적인 점 또한 <해녀노래>가 지니는 바 力動的, 直說的인 特性을 더욱 도탑게 한다.

이상 <해녀노래>의 實相을 간추려 보았지만, 다음에는 앞으로의 課題 몇가지를 제시할까 한다.

① 우선 <해녀노래>에 대한 충실한 수집작업이 先行돼야 할 것이니, 치밀한 계획 아래 그 錄音, 비디오錄化와 採譜, 사실 轉寫 등 방대한 작업이 國家的 次元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충실히 수집된 資料를 대상으로 이의 文學的, 民俗學的 分析이 다각적으로 시도돼야 할 것이며, 그 音樂的 考察을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민요의 바람직한 繼承 對策과 編曲 教材化도 시급하다.

③ 모든 勞動謠가 그렇듯이, <해녀노래>는 우선 海女作業을 바탕으로 口演하는 것이므로 海女作業 자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作業實態와 口演狀況과의 상관도 立體的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④ 海女社會와 <해녀노래>에는 特有的 語彙와 俗談이 따르며 傳說 등의

口碑傳承도 전해진다. 이를 체계 있게 수집 정리하고 共同體의 規範이 짙은 漁村 特有的 社會組織 및 삶의 방법과의 상관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 VI. 結 論

이 글에서는 우선 濟州海女の 珍重性이 도타운 그 이유를 몇가지 측면에서 밝힌 다음, 울창한 숲과 같은 研究課題를 ① 民俗學的, 文化人類學的 觀點, ② 經濟的 觀點, ③ 文學的, 音樂的 觀點 ④ 生理學的, 醫學的 觀點, ⑤ 法社會學的 觀點 등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前提했다. 여기에서는 濟州海女에 대한 民俗的 考察을 몇가지 측면에서 시도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고 몇가지 課題를 제시해 본다. ① 거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海女作業은 늘 不安全하고 해녀들이 身命의 위험에 直面하기 쉬우므로 해녀사회에서는 怪奇談이 전승된다. 그 怪奇談에는 龍宮이 가끔 등장한다. 바다의 彼岸에 淨土의 世界를 想定하는 것은 沉人類의인 文化現象이며, 바다는 아에 이 세상 陸地의 世界와는 유다른 異質空間으로 觀念하면서 現世와 異質空間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海女라고 보는 데서<sup>31)</sup> 龍宮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海女社會의 俗信은 그 濃度가 짙다. 豐漁祭儀인 영등굿만 하더라도 韓半島의 海村에서는 個別儀禮로 치러지는데 비하여 제주에서는 村落共同의 祭儀로서 한마을의 해녀·船主들과 온주민이 한가족처럼 두루뭉수리로 함께 參禮한다. 또한 영등굿이나 潛女굿의 祭次에서는 해녀들의 간곡한 俗信的 觀念과 行爲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음력 正初에는 해녀가정마다 제각기 심방에게 의뢰하여 해안에서 個人儀禮를 치른다. 따라서 해녀들의 信仰心意와 行爲는 保守的 色彩를 짙게 띠면서 集團儀禮와 個人儀禮가 併行하는 셈이다. 또한 祖上본풀이 속에 巫神이 海女作業을 겪고 眞珠를 술하게 캔 이야기가 등장함은 옛부터 해녀질이 질실한 生業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주요한 海女器具의 材料·規格 및 機能과 그 變貌樣相을 살피는 가운데

31) 宮田登: "さまよえる'海人族'の謎", 《蒼海訪神うみ》p. 31, 旺文社, 1985.

데 우리는 實質에 터전한 民間知慧를 歸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海女器具를 둘러싼 俗信的 觀念도 드러나며, 그 變遷은 개개인의 自生的 意圖보다 集團과 環境의 영향이 짙은 듯하다. 新婦에게 孀家에서 海女器具 일체를 정성껏 마련하는 慣習이 전승되었음은 濟州의 漁村社會에 있어서 海女作業이 지니는 육중한 비중을 드러내 준다.

④ 濟州해녀 特有的의 〈해녀노래〉는 그들의 물질과 密着된다. 〈해녀노래〉는 〈멧돌·방아노래〉와 더불어 濟州민요의 秀逸性을 이룩하는 데 그 主宗이 된다. 〈해녀노래〉의 가락은 力動的이요, 그 사실은 해녀작업의 實相과, 작업과는 상관 없는 日常的인 생각을 노래하는 두가지로 드러난다. 〈해녀노래〉의 사실 속에는 해녀들이 國內外에서 裸潛漁業에 獻身沒入하며 身命을 다 바치는 강렬한 삶의 意志가 현저하다.

이상 民俗的 觀點에서 濟州해녀를 접근해 보았지만은 앞으로의 課題도 山積과 있다. 純農村과 對比한 漁村社會構造의 特性은 무엇이며 漁村社會에서의 海女の 位相과 機能은 어떠한가. 養女制度의 慣行과 관련하여 해녀사회에서의 女性勞動力의 비중은 어떠하며 家族關係의 特質은 무엇인가. 해녀사회에 있어서의 共同體的 結束과 總和意識 및 水平意識은 어떻게 드러나는가.<sup>32)</sup> 主漁從農, 半農半漁, 主農從漁 어느쪽이든 해녀사회에 있어서 농사짓기를 포함한 年中生活曆과 年中리듬은 어떠한가. 保守性과 開放性이 共存하는 해녀사회의 文化重層性의 실태는 어떠한가. 裸潛漁場을 둘러싼 入漁慣行과 그 紛糾實相은 어떠한가. 濟州해녀가 韓半島와 東北아시아 일대로 出稼함에 따른 유다른 習俗은 무엇인가. 이 모든 해녀들의 삶의 모습은 앞으로의 課題로 남는다.

32) 山岡榮市; 《漁村社會學の研究》 p. 136, 大明堂, 1965.